Attitude _성도들의 삶 Ⅷ.
성숙함을 경작하라. 성숙함은 갈등의 문제를 결국 이기게 한다.

1.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미성숙과 연약함으로 부터 온다.

성경은 연약한 자들(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라는 것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안에 '연약함' 이 있다. 연약하다는 것은 보살펴야 할 약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15:1]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관계적 갈등' 이다. 관계적 갈등의 대부분은 미성숙함으로부터 온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함이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고 말한다.

[빌립보서 2:3-5]
3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4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5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1) 미성숙함의 정의

남이 아닌 '자기'만 아는 태도. 이들의 관계에는 언제나 '다툼' 이 일어난다. 왜 그런가? '자기 기준' 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다.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빌립보서 2:3]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empty conceit)~ (NIV)

다툼과 허영에 대한 영어 번역을 보니 '이기적(자기중심적) 야망' , '공허한, 헛된 자만' 으로 번역되어 있다. 자기중심적 야망과 헛된 자만심은 결국 모든 영역에서 다툼을 만들어 낸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는 하나이다. '자기 중심적' 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이웃과 공동체' 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배려하는가에 대한 차이이다.

(2) 성숙함의 정의

빌립보서 2장 3-4절에 설명되어 있다. '자기가 아닌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태도' 를 말한다. 이런 사람의 태도는 '겸손' 이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아닌 남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겸손은 성숙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태도, 즉 '겸손의 태도' (자기 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태도) 를 지닌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회복이 있다. 그리고 부흥이 있다.

3. 관계의 문제에 대한 영적원리

일단 관계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이미 엉켜있다는 것이다. 관계의 갈등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엉킨 관계의 줄을 풀기 아주 복잡하다는 것이다. 관계는 풀지 않으면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풀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문제는 묶여진 매듭에서 오는 관계의 갈등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헛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다.

무서운 사실은,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면, 결국 어떤 시점에 가서 폭발한다는 것이다. 어떤 면이든지 반드시 풀리지 않는 매듭은 어떤 영역에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묶어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야 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략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1) 성도의 모든 문제는 본질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땅의 방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 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한다. 본질인 영적인 영역이 풀려야 온전히 풀어지는 것이며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의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 지는 것 같은 소강상태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조용할 뿐이지 사실 태풍의 눈은 여전히 내면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본질적인 영적의 해결이 필요하다.

(2) 영적인 해결이란? 하나님과의 안정감안에서 내 문제 바라보기.

먼저, 나를 정렬시켜야 한다. 갈등의 문제가, 갈등이 있는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관계의 문제를 당사자인 상대방과 해결하려는 시도가 선행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성도들이 지닌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 안에서 문제를 바라 보아야 한다. 내 모든 문제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다윗은 사울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항상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 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감정, 상황, 기분에 휩쓸려 보지 않는 것이다. 감정, 상황, 기분은 불안정한 환경이다. 이 때 내려지는 모든 결정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때가 많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는 나 자신이다. 따라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안정된 시각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성숙함' 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이 때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파괴의 독이 제거되는 순간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해결의 첫 번째는 '안정감, 평강' 이다. 성도의 평강과 안정감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영적인 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는 마귀의 권세이다.

마귀의 권세는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4.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이시다.

(1)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초점을 예수님께 돌려야 한다.

내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 때, 갈등의 문제안에 있는 내 자신이 갈등의 문제 밖으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2) 예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영적환경)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 영으로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이다.

(3) 예수님의 성품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숙함' 이다.
성숙함이란 모든 것이 무르익은 상태이다. (열매가 터져 나가기 직전의 상태)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상태이다. 의지가 예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의 고리가 풀려지는 순간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단계이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단계이다. 이 성숙함의 단계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상태' 이다.

(4) 관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기 시작한다. 책임지기 시작한다.
이 단계가 되면 상대방을 '존중' 하는 마음이 생겨진다. 용납을 넘어 그 발을 씻기고, 섬기고 싶은 존중의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성숙함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5) 존중과 경청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존중과 경청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상대방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 공간 안에서 상대방을 향한 자원하고자 하는 기쁨의 마음이 올라온다. 상대방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마음이다.

[창세기 13:9]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6) 관계의 한 축이 되는, 탄탄한 나를 묶고 있는 줄이 풀려야 결국 관계의 매듭은 느슨히 풀리기 시작한다.
느슨함의 여유가 상대방의 마음안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자유의 느슨함으로 풀리게 된다.

(7) 성숙함은 모든 관계의 문제를 풀게한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로 옷 입어야 한다. 성숙함을 경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성숙함은 나를, 우리를, 공동체를, 이 나라를, 열방을, 하나되게 하는 유일한 열쇠임을 명심하라.